

Part 5

국제 농업 정보

1.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
2. EU,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지원 연구 발표
3. EU집행위원회, 미국과 쇠고기 쿼터 재협상
4. USDA, 농촌 보건 및 의료 개선 투자
5.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11 발표 확정



국제 농업 정보 (2018. 11)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

- FAO에 따르면 2018년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소폭 하락함.
 - 유제품, 육류 및 식물성 기름의 가격 하락이 설탕 가격 급등 폭 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소폭 하락함.
- 국제 식료품의 월별 가격 변화를 측정한 10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9% 하락함.
 - 이는 2017년 10월 보다 7.4% 낮은 수준임.
- FAO 유제품가격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전월대비 4.8% 하락함.

- 모든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모든 주요 유제품, 특히 뉴질랜드에서의 수출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에 영향을 미침.
- FAO 육류가격지수는 지난 9월 대비 2.0% 하락함.
 - 수출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양고기, 돼지, 소, 가금류 고기 순으로 모든 육류품목 가격이 하락함.
-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한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는 주요 생산국가에서의 수출과 돼지고기 가격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음.
 - 유럽의 동물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유럽산 돼지고기 가격은 10월 내내 계속 하락함.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발로 인해 제3국으로의 수출이 광범위한 금지조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벨기에의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현재 100kg당 1,033유로에 불과함.
- FAO 식물성유지 가격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1.5% 하락함. 이는 2009년 4월 아래 가장 낮은 수준임.
 - 최근 팜유에 대한 세계 수입 수요 부진과 주요 수출국의 풍부한 재고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침.
 - 반면 바이오 디젤 부문의 수요가 증가한 세계 대두유 가격은 소폭 상승함.
- FAO 곡물가격지수는 미국의 견고한 옥수수 가격으로 인해 지난 9월 보다 1.3% 상승하여 반등함. 반면 쌀 가격은 수확기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과 수출국간 경쟁,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하락함.
- FAO 설탕가격지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기후 관련 생산전망이 부정적으로 예측되며 8.7% 상승함.
 - 세계 최대 설탕 생산지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사탕수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 최근 FAO 곡물수급 보고서(Cereal Supply and Demand Brief)에 따르면 올해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 최고치를 1.3% 상회하여 5억 1,3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세계 밀 생산량은 약 7만 2,800만 톤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EU, 미국,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량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여름철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북유럽 국가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함.
 - 북부 및 중부 유럽의 일부지역에서는 기온이 평소보다 6~8도 높으며, 특히 북유럽 및 발트해(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가에서 생산량이 크게 하락함.
- 거친곡물(coarse grains)의 세계 생산량은 저년대비 2.2% 감소한 13억 6,000만 톤으로 전망됨. 현재 남반구 국가에서는 거친곡물 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 FAO는 세계 곡물 이용이 0.20% 증가한 2,65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함. 이는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옥수수의 사료 및 산업적 이용 증가에 기인함.
- 국제 곡물 교역 규모는 2017/18년 수준에서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밀과 쌀은 모두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옥수수 물량은 증가하고 사탕수수양은 감소하며 거친 곡물의 세계 교역량은 전년도의 기록적인 수준인 1억 9,500만 톤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Agra Europe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207/Food-prices-fall-in-October-led-by-dairy-and-meat>) (2018.11.02.)

EU,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지원 연구 발표

- 2018년 10월 25일에 발간된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지원(The CAP support beyond 2020) 연구는 EU 농업 및 환경 문제의 관점에서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와 농촌 개발 개입(rural development interventions)의 미래 구조를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연구는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경작지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지불 메커니즘이 변하지 않아 EU 농부들에 대한 불평등하고 비(非)목표적인 소득 지원책의 문제점을 미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을 비판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 지원의 재분배는 농가 소득 이외의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공정성 개선 및 재정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함.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Agriculture Committee)의 요청에 따라 슬로베니아의 류브랴냐 대학교(University of Ljubljana)의 농업정책 및 경제학 교수 Emil Erjavec와 그의 동료들은 EU가 직면한 주요 농업 및 환경 문제의 맥락에서 직접지불제와 농촌 개발 개입에 대해 조사하였음.
- 2018년 6월 1일, EU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초안 규정을 발표하였음. 이후 EU회원국들은 사전에 결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과 각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동농업정책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공동농업정책 전략 계획을 작성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실행기간(2014-2020년) 동안의 현 농업부문의 예산 약 4,080 억 유로에서 5% 삭감한 3,650억 유로의 예산을 제안하고 있음.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

-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지원에 관한 연구는 현 상한선 기준(capping criterion) 을 농업부문의 노동에 대한 규범적인 산출과 노동 단위의 최대 보상 한도에 근거한 대안을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류블라냐 학자들은 EU 단일 시장의 완전성(integrity)과 평등한 경쟁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결합지원(voluntary coupled support)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원조에 관한 예산은 전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부문별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회원국 단위로 특정 부문에서 활동하는 농민들 지분의 30%에 달하는 결합 소득지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권장됨.

- 친환경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는 친환경 계획과 관련하여 EU회원국들은 경작면적이 아닌 다른 산출물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동기반의 목표 지불금을 허용해야함.
 - 또한 친환경 계획의 범위는 동물 복지 및 사회적 관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 친환경 계획의 수혜자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그들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에 적절한 모니터링을 보장해야함.

□ 농촌 개발 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

- 농촌 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는 농촌 개발(Pillar 2)의 불균형적인 지출을 야기하는 EU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음.
 - 농촌 개발(Pillar 2)에 대한 EU의 평균 지출액보다 낮은 지출액을 보이는 회원국에 대해 농촌개발에서 직접지불(Pillar 1)로의 자금이 유연하게 이동되는 것을 더욱 제한해야 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생산적인 투자 및 위기 이후의 자산 복원과 같은 시장 실패만을 다뤄야 하는 투자금은 약 5%의 최소 의무 지출액 요건 도입을 정당화 함.
-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투자 및 지원금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WTO)의 감축대상보조금(amber box)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생산 및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의 모든 국내 지원책(예외는 있음)들은 감축대상보조금(amber box)에 속함.
- 본 연구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 공동농업정책과 동 정책의 효과가 현재 회원국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견고히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음.
 - EU 회원국들은 산출액 및 결과 지표에 대한 목표 값을 정의해야하며, 이는 연간 '성과 정리'와 EU 회원국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EU집행위원회의 지불금에 대한 상환에 있어 핵심역할을 할 것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112/Direct-payments-need-to-be-better-targeted-to-reflect-new-priorities-beyond-farm-income>) (2018.10.25.)

EU집행위원회, 미국과 쇠고기 쿼터 재협상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총 4만 5,000톤에 달하는 쇠고기 쿼터의 국가별 할당량 설정에 관한 재협상 논의에 대해 동의함.
 - 초기 논의는 워싱턴과의 협상으로 시작하지만 EU집행위원회는 다른 공급 국가들과의 협상 또한 각 국가들의 권리 존중 및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소위 ‘481’ 쇠고기 쿼터제는 EU에서 성장 호르몬으로 기른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대서양 횡단 논쟁에 대한 해법으로서 2009년에 처음 도입됨.
 - 이후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포함한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쇠고기 생산국 시장에 개방되었음.
 - 이들 경쟁 공급 국가들에 의해 더 많은 할당량이 차지됨에 따라 미국은 초기 계약에 따른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하였음.
- 2018년 3월, 보복제재의 위협에 직면한 EU집행위원회는 쿼터 재협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며, 그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
 -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받은 의견에 의하면 미국에 할당량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대서양 횡단거래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임.
 - 반면, 브뤼셀은 협상을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은 “우리의 무역 협력을 개선하는 주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동시에 협상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은 모든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하의 EU의 법적 의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호주는 수출부문이 EU의 호르몬 프리(hormone-free) 쿼터제를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쿼터 접근이 미국의 용도 제한 조치가 된다면 해당 쿼터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 쿼터제 하에 쇠고기 공급이 가능한 세 개의 국가 뉴질랜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또한 비슷한 우려를 포함.

○ EU집행위원회는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일부 식품업체들과 현재의 무역 옵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육류 수입업체들과 함께 EU 내에서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총 4만 5,000톤의 쿼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EU의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함.
- 이는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은 미국에 어느 정도의 용도제한조치를 가할 것인지와 다른 공급 국가들에게는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이지를 의미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065/EU-Commission-mandated-to-start-beef-quota-talks-with-US>) (2018.11.22.)

USDA, 농촌 보건 및 의료 개선에 투자

○ USDA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및 의료 개선 사업에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USDA 농촌개발국은 미국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60개의 프로젝트에 약 5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함.
- USDA 농촌개발국은 강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미국 농촌지역의 번역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함.
- 또한 USDA는 농촌지역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현대적이고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를 통해 농촌의 삶의 질과 경제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 USDA 농촌개발국은 농촌 지역사회가 직면한 특정 건강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National Rural Health Day' 기념으로 농촌 보건 및 의료 개선 계획의 일부를 발표함.
- USDA 농촌개발국은 직접적인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6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미국의 34개 주의 약 200만 명의 농촌지역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USDA는 알라바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일리노이,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웨스트 버지니아의 의료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
- USDA 농촌개발국의 농촌지역 보건 및 의료 개선 투자 발표는 농촌 보건 및 의료 시스템의 주요 부분인 농촌 병원의 재정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USDA와 NRA(National Rural Health Association)간의 파트너십을 보완하여 농촌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및 재무지표 파악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함.
-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촌지역의 농업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규제 및 정책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농업 및 농촌 번영에 관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함.
 - 2018년 1월, 퍼듀 장관은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함. 이 조사 결과에는 미국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농촌지역사회를 연계시키기 위한 31건의 권장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농촌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는 이 태스크포스의 주요 권장사항 중 하나임.
- USDA 농촌개발국은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출 및 보조금과 주택, 학교, 병원 등의 공동체 시설, 공공안전 및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원함.¹⁾

※ 자료: USDA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AOC/bulletins/21bb3b8>)
(2018.11.15.)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11 발표 확정

- 일본의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TPP 담당자는 10월 31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환태평양연휴협정(TPP11)이 12월 30일 발효가 확정됨을 발표함.
 - TPP11이 발효됨에 따라 각료급 TPP위원회를 2019년 1월에 일본에서 개최하고, TPP 가입국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협의할 예정임.
 - TPP에 따라 수입농림수산품의 82%의 관세가 철폐되고 주요품목도 관세 절감되거나 수입물량이 설정되며, 일본 농업은 과거에 없던 시장개방을 맞이하게 됨.
- TPP11 사무국을 맡고 있는 뉴질랜드 수출진흥장관은 TPP11 발효에 필요한 6개국(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의 절차가 완료되어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교섭 개시로 미국의 TPP복귀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12개국이 결정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었음. 그러나 정부는 검토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음.
 - TPP11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쇠고기의 발동준비수량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포함한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 미국이 빠지게 될 경우 TPP11에서 실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일본의 물품무역협정(TAG)이 2019년 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은 TPP 복귀 가능성이 낮으므로 하루 빨리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1) (www.rd.usda.gov) (검색일: 2018.11.15.)

- TPP 11개국은 11월 중순에 신규 TP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대우나 협정 운용 규칙을 책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2019년 1월 초 수속을 마치고 60일 경과한 체약국으로 구성된 TPP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TPP가 발효되면 수입농산물의 관세율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첫해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2019년 4월부터 두 번째 해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임. 그 후 매년 4월에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바뀜.
- 쇠고기 관세는 1년차에 현행의 38.5%에서 27.5%로 인하됨. 그 후 단계적으로 낮아져 16년째에는 9%가 됨.
- 돼지고기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저가격대의 종량세, 고가격대의 종량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종량세 1kg에 해당하는 50엔이 될 것임.
- 호주로 수출하는 쌀은 특별수입물량을 설정함.

※ 자료: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p45661.html>) (2018.11.01.)

자료작성: 흥예선 연구원